

#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 데이터의 청소년 가치관 중심으로

김아림

극동대학교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 Exploring Determinants of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among Generation Z, Teenagers - Focused on Their Youth Values with the Panel Data from Kore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Ah Rim K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care Science, Far Eas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이 장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2020년에 수행된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패널 조사'에 참여한 5,290명의 청소년(13~18세)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후, 청소년 가치 요인은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 있었다. 인생관, 가족관,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사회-국가관은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4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Z세대의 장래 출산의향을 높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가정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 국가 및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친화적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youth values of Korean teenagers on the intention of childbirth in the future. In 2020, data were collected from 5,290 adolescents (ages 13-18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Panel Study on changing youth values of Gen Z. Determining factors for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were evalu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the adjustment for socio-demographics, youth value factors were linked to the teenagers' future intention of childbirth. Their outlook on life, views on family and marriage, occupational views, and views on society and the n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the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accounting for 44.3% of the variance.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healthy values through education in the home environment from early childhood, a tailored support plan, and a policy strategy for Gen Z to increase their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Keywords** : Generation Z, Adolescent, Teenager, Youth Value, Intention of Childbirth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저출산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2022년

기준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1]. 개인의 출산의향은 어린 시절부터 이뤄지는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인 저

\*Corresponding Author : Ah Rim Kim(Far East Univ.)

email: arongsama@kdu.ac.kr

Received July 28,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August 23,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실마리로 조명 받고 있다[2]. 최근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의향 및 출산 계획의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순히 합계출산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적인 삶의 질 증진에 기반을 둔 출산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3]. '제2차 인구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는 최근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을 결혼의 탈 제도화와,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에 있어 주체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과 같은 관념의 변화에 기반을 두어 설명한다[4]. Yim[5]에 따르면, 출산의향은 한국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인 가족가치관(평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가족 및 출산의향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는 가족가치관의 형성과 관련 있는 장애 요인인 경제적 상황, 즉 소득, 노동시장 구조, 직업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6]. 예컨대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 만족도, 배우자 경제력, 자녀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가치관과 교육비 지출 부담 외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가계지출의 부담도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결국 한국의 극저출산은 출산과 양육의 고비용 문제에 따른 합리적 선택과 자아실현 욕구 그리고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비혼과 비출산 동기 강화, 남녀평등 인식과 젠더 및 라이프스타일 방식 등 개인 차원의 복합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8,9].

가족 형성 및 출산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은 제거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그런데 국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기조와 방향성에 관한 논의는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학계 차원의 후속 연구가 뒤를 잇는 형태이므로 정책-학계 논의에 상호 밀접한 교류와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의견이 존재한다[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과 가치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11],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44%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심화 요인에 대해서는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구조적 관점' 및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자율성, 가치관 및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등에 초점을 둔 '사회심리, 환경,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다[2,8]. 이에 출산의향의 형성과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 각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과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3].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 혹은 집단(친구들, 부모, 친척 등)이 가지는 출산에 대한 기대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3]. 특히 가족주의적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 경우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압력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가치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산 정책이나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담보할 구성원인 Z세대(혹은 iGen)는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 출생)와 X세대(1981~1995년 출생) 이후에 태어난 포스트 밀레니얼세대(1995~2012년 출생)로서 2017년에 노동인구로 합류하게 되는 최신 세대이다[12]. Pew Research Center[13]에서는 1996년도에 출생한 사람까지 밀레니얼세대로 보고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세대의 일부라고 간주하였다. 같은 세대에서 연령대의 경제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합의된 공식이나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13], 동일한 연대기, 사회적·역사적 시간대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유사한 특성, 가치, 행동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동시대적 사람들을 '세대'라고 총칭한다[14]. 일반적으로 Z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에 출생했으므로, 2020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은 Z세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세대로 알파세대(중등교육 진입 예정인 2010년 이후 출생자)와의 경제선상에 있는 포스트 Z세대라고 할 수 있다[15]. 이들은 디지털 학습도가 높은 X세대의 자녀 세대로, 출생 이후 디지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이다[16]. 포스트 밀레니얼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청소년은 1인 자녀 가구 등의 성장 환경과 신기술의 급변화 속에서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혹은 미디어 이용, 글로벌 문화 교류에 친숙하다[17]. 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 수준은 높은 편으로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열린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18].

한편 출산율 감소의 요인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가치관의 변화'가 학문적·정책적 영역에서 중요한 근거로 다루어져 왔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성인 혹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및 출산 자녀 수 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원가족과의 관계 및 부모-자녀의 관계

[19], 결혼관 및 출산양육동기와 같은 가치관 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런데 이 가치관에 대해 Kim[21]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이자, 청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이념이나 신념 혹은 표준 규범으로 작용해 행동의 방향성과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므로 Park과 Byun[20]은 한 번 형성된 가치관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청소년의 결혼·출산 가치관은 향후 혼인기와 가임기에 진입하였을 때 사회적 여건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관 등을 결정짓는 사고방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22]. 1980년대~2000년대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자녀양육 지원,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노동시장), 교육, 주거, 보육 등 거시적 사회 환경과 성평등·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24] 그리고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결혼·출산 가치관 관련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Z세대 10대 청소년은 주관적으로 삶의 행복감과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 상이하다고 알려져 있다[17].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청소년은 예비 결혼 세대로서 가족 외에 교류하는 사회관계망이 넓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결혼·출산 가치관과 사고 확립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해질 수 있다. 이에 인구집단별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Z세대를 대상으로 가치관과 출산의향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은 추후 세대로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할 때 두고 있는 가치와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인구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구 변동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대별 인식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정책적 요구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집단별로 행복감의 분포와 영향 요인이 다르므로 행복 증진을 위한 그들의 요구와 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25].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 집단으로서 가치 지향적·합리적 소비 패턴에 따른 실용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고, 주체적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중요

시하고, 건강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 소비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26]. 또한 다른 어떤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성취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7]. 따라서 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전망하고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나이지리아 청소년 대상 코호트 연구에서는 자존감, 출산에 대한 부모의 기대, 출산에 대한 태도, 또래관계와 관련된 사회 규범과 같은 사회문화 변수와 미디어 그리고 민족성 관련 태도가 출산의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출산의향에 관한 또 다른 국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에 대한 청소년의 동기 중 가장 유효한 요인으로 여성의 의사결정력과 재정적 문제가 꼽혔다[28]. 한편, 저출산 심화와 장기화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에서도 20대 이상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9,30]. 그런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래 출산의향과 가치관 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17]. 가치관 형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의 경우 통해 인간의 가치관, 인식과 행동 개선을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20].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사회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건강한 가족 형성을 통해 예비 양육자가 될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과 가치관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결혼 및 출산, 부모 역할과 관련된 가치관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혼 청년들 사이에서 출산, 결혼, 일이라는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는 ‘삼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오래됐고 최근에는 ‘N포 세대’까지 등장하며, 생애주기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지던 가족 형성을 위한 결혼 이행, 출산 등을 포기하는 추세이고, 그 결과로 인구 절벽의 위기가 도래한 실정이다[31]. 현재의 10대 중고등학생은 성인으로의 진입을 앞둔 예비 결혼 세대로서, 원가족과 성장 과정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19] 형성된 결혼·출산 가치관이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교류와 학습을 통해 장래 출산의향 관련 가치관으로 확고히 정립돼 가는 시기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 형성 및 출산 관련 예측 요인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근거 기반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인구 교육을 증재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관 및 국가관과 같은 가치관과 출산의향 간

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1 연구 문제

Z세대 10대인 한국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은 어떠한가?

첫째, 10대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국가관)별로 장래 출산의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10대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은 장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본론

###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 데이터인 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17]를 활용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에 보고된 것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6,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설정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활용하여 표본 추출하였다. 2020년 7~9월에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대해 협조 공문과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수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거나 우편 조사하는 방식 중 해당 학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고 최종 5,740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희망 자녀의 수와 관련 가치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성실한 응답 사례를 얻기 위해 데이터에서 관심 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없는 케이스를 선택하여 5,290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2 측정 항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 데이터[17]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진이 문헌 연구를 검토하여 조사 영역과 문항을 개발한 설문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 문항(안)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학계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전문 기관의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확정된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된 조사 영역 및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2.1 장래 출산의향

종속변수로서 희망하거나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출산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연속형 변수인 '희망하는 장래(기대) 자녀의 수'를 활용하여 출산의향(없음 0, 있음 1)으로 더미변수를 치환하였다. 이 도구의 설문 문항은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몇 명으로 답할 수 있고, 없으면 0명으로 응답할 수 있다.

#### 2.2.2 청소년 가치관

##### (1) 인생관

인생관, 곧 "인생의 가치, 의의, 목적 등에 대한 관점 내지 견해"[32]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미래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미래는 밝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게 했다.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이웃, 여가 시간, 건강, 직업, 종교, 학력, 명예, 돈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2점), '중요한 편이다'(3점), '매우 중요하다'(4점)로 응답하게 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생관 측정 문항(14개)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5로 나타났다.

##### (2) 가족 및 결혼관

가족 및 결혼관(결혼에 대한 견해 혹은 주장)[32]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생활 만족도, 결혼 후 부모 부양,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생각, 명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을 포함하였다. '나는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결혼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고 싶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절(설날, 추석 등)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라는 문항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로 응답할 수 있다. 이혼, 미혼모, 입양,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기하도록 하고, '전혀 동의

안 함'(1점)부터 '매우 동의함'(10점) 중 하나의 숫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및 결혼관 측정 문항(9개)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0으로 나타났다.

### (3) 진로 및 직업관

진로 및 직업관(직업에 관한 생각 혹은 태도)[32]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패널 데이터에서 활용된 문항 중 인생 목표, 대학 진학의 필요성,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주도성, 직업 낙관성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다. 예컨대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미래의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할 수 있다.

### (4) 학교 및 친구관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5) 사회·국가관

사회관이란 "통일된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의의 및 가치에 초점을 둔 견해 혹은 주장"이고, 국가관은 "통일적인 전체로서 국가의 목적, 의의, 성립과 형태 등에 대한 견해나 주장 체계"로 정의된다[32].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패널 데이터에서 활용된 문항 중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견해, 우리 사회에 관한 견해(공정, 인권 존중, 다양성 인정, 남녀평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나라가 위급할 때의 헌신 여부, 타국이 어려울 때의 원조 필요성, 집단 이익을 위한 본인의 희생, 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남북통일 필요성,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지원,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 희생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의 점수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답하도록 하였다. 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으로는 부모님(보호자), 친구, 학교 선생님, 이웃,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 정치인, 공무원, 인터넷 정보, 인공지능(AI)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1점),

'믿을 수 없는 편이다'(2점), '믿을 수 있는 편이다'(3점), '매우 믿을 수 있다'(4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전혀 믿을 수 없다'(0점)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10점)까지 하나의 숫자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가족 및 결혼관 측정 문항(22개) 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로 나타났다.

##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해당 패널 데이터에서 관련 변수별로 데이터 결측치가 없는 불완전한 케이스를 추출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이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영역별 가치관에 따른 장래 출산의향 분포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영역별 가치관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로 응답한 경우에 부정 응답 그룹으로, '그런 편이다'(3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한 경우에 긍정 응답 그룹으로 묶었다. 출산의향 예측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장래 희망 자녀의 수'에 대한 응답에서 '0명'으로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 가치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 2.4 연구 결과

### 2.4.1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장래 출산의향분포

전체 대상자 수는 5,290명으로 Z세대인 10대 한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이에 따른 장래 출산의향 분포 경향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교 급에 따라 고등학교가 53.3%, 중학교가 46.7%로 나타났고, 성별은 여학생이 50.5%, 남학생이 49.5%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46.7%), 대도시(39.9%), 읍면지역(13.5%) 순으로 많았다.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 있다고 나타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교 급( $\chi^2=18.82$ ,  $p<.001$ ), 성별( $\chi^2=240.35$ ,  $p<.001$ )이었다. 반면, 지역규모는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2.03$ ,  $p=.363$ ).

Table 1.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according to Teenager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Future Intention of Childbirth		
	No	Yes	p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87 (9.2%)	1984 (37.5%)	.001
High school	696 (13.2%)	2123 (40.1%)	
Sex			
Male	351 (6.6%)	2269 (42.9%)	.001
Female	832 (15.7%)	1838 (34.7%)	
Regional scale			
Big cities	490 (9.3%)	1619 (30.6%)	.363
Small and medium-sized	531 (10.0%)	1938 (36.6%)	
Rural communities	162 (3.1%)	550 (10.4%)	

Note. N = 5290.

#### 2.4.2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가치관에 따른 장래 출산 의향 분포 차이

Z세대인 10대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에 따른 장래 출산 의향 분포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생관 측면에서, 장래출산 의향과 관련있는 가치관 요인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만족 여부( $p < .001$ ), 현재의 행복감 여부( $p < .001$ ),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 여부( $p < .001$ ),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 가족( $p < .001$ ), 동성 친구( $p < .001$ ), 이성 친구( $p < .001$ ), 이웃( $p < .001$ ), 건강( $p < .001$ ), 종교( $p < .001$ ), 학력( $p = .002$ ), 명예( $p < .001$ )인지의 여부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시간, 일(직업), 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장래 출산 의향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 및 결혼관에 있어서,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 여부( $p < .001$ ), 결혼 후 부모님 부양 희망( $p < .001$ ), 결혼 후 자녀 필요성( $p < .001$ ), 명절(설날, 추석 등)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의 필요성( $p < .001$ ), 결혼에 대한 긍정/부정 입장( $p < .001$ )은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혼( $p < .001$ )( $M=5.49$ 점 기준), 미혼모( $p < .001$ )( $M=5.48$ 점 기준), 입양( $p < .001$ )( $M=6.61$ 점 기준), 동성애( $p < .001$ )( $M=4.63$ 점 기준)에 대한 동의(평균치 이상/미만 구분) 여부가 청소년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직업관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장래 출산 의향과 관련 있는 가치관 요인은 '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있다'( $p = .044$ ),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 $p = .016$ ),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

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p = .007$ ),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p = .003$ )로 나타났다. 학교 및 친구관 영역에서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 $p < .001$ )과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 $p < .001$ )의 인식이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 및 국가관 영역에서,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있는 가치관 요인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 < .001$ ), 우리 사회에 대해 '공정성'( $p < .001$ ), '인권 존중'( $p < .001$ ), '다양성 인정'( $p < .001$ ), '남녀평등 사회'( $p < .001$ ),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p < .001$ ) '나라가 위급할 때에 헌신'( $p < .001$ ), '타국의 어려움에 대한 원조'( $p < .001$ ), '집단의 이익을 위한 희생'( $p < .001$ ), '남북통일 필요성'( $p < .001$ ),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 기회와 지원'( $p < .001$ ),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권리 희생'( $p < .001$ ), '필요시 주거지역에 혐오시설 설치'( $p = .037$ )가 관련 있었다. 또한, 신뢰하는 청소년이 부모님(보호자)( $p < .001$ ), 친구( $p < .001$ ), 학교 선생님( $p < .001$ ), 이웃( $p < .001$ ), 언론(TV, 신문)( $p < .001$ ), 정치인( $p < .001$ ), 공무원( $p < .001$ ), 인터넷 정보( $p < .001$ )라는 대상자 혹은 대상을 신뢰하는 지의 여부 및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p < .001$ )( $M=5.22$ 점 기준) 여부가 청소년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3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 예측 요인

Z세대인 10대 한국 청소년의 영역별 가치관을 중심으로 장래 출산의향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본 연구 자료 분석에 투입된 요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장래 출산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 파악된 영역별 가치관 변수들과 함께, 통제 변수로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교육 수준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 평가를 위해 -2LL의 값을 카이제곱의 Hosmer-Lemeshow 통계량으로 검정하여 살펴봤을 때,  $\chi^2=9.795$ ,  $df$  8,  $p = .280$ 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의 결정계수( $R^2$ ) .290, Nagelkerke의 결정계수( $R^2$ ) 44.3%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장래 출산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Z세대인 10대 한국 청소년의 영역별 가치관 중 본인의 인생에서 이성 친구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Adj.OR=1.79), 가족 및 결혼관 중 결혼 후 자녀 계획의 필요성(Adj.OR=19.41),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Table 2.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according to Teenagers' Youth Values

	Youth Values of Teenagers	Future Intention of Childbirth		
		No	Yes	p
O u t l o o k  o f  L i f e	I am satisfied with my life [N / Y]	271(5.1%) / 912(17.2%)	573(10.8%) / 3534(66.8%)	<.001
	I feel happy [N / Y]	261(4.9%) / 922(17.4%)	554(10.5%) / 3553(67.2%)	<.001
	My future is bright [N / Y]	419(7.9%) / 764 (14.4%)	1019(19.3%) / 3088(58.4%)	<.001
	Importance of family [N / Y]	36(0.7%) / 1147(21.7%)	37(50.7%) / 4070(78.0%)	<.001
	Importance of same-sex friendships [N / Y]	60(1.1%) / 1123(21.2%)	85(1.6%) / 4022(76.0%)	<.001
	Importance of boy of girl friend [N / Y]	504(9.5%) / 679(12.8%)	732(13.8%) / 3375(63.8%)	<.001
	Importance of neighbors [N / Y]	706(13.3%) / 477(9.0%)	1804(34.1%) / 2303(43.5%)	<.001
	Importance of free time [N / Y]	49(0.9%) / 1134(21.4%)	139(2.6%) / 3968(75.0%)	.215
	Importance of health [N / Y]	47(0.9%) / 1136(21.5%)	71(1.3%) / 4036(76.3%)	<.001
	Importance of job [N / Y]	44(0.8%) / 1139(21.5%)	113(2.1%) / 3994(75.5%)	.084
	Importance of religion [N / Y]	1016(19.2%) / 167(3.2%)	3066(58.0%) / 1041(19.7%)	<.001
	Importance of academic background [N / Y]	222(4.2%) / 961(18.2%)	619(11.7%) / 3488(65.9%)	.002
	Importance of honor [N / Y]	319(6.0%) / 866(16.4%)	799(15.1%) / 3308(62.5%)	<.001
	Importance of money [N / Y]	52(1.0%) / 1131(21.4%)	184(3.5%) / 3923(74.2%)	.901
F a m i l y	I am satisfied with my family life [N / Y]	122(2.3%) / 1061(20.1%)	256(4.8%) / 3851(72.8%)	<.001
	Living with parents, after marriage [N / Y]	754(14.3%) / 429(8.1%)	2323(43.9%) / 1784(33.7%)	<.001
	Having children after marriage [N / Y]	1133(21.4%) / 50(0.9%)	1528(28.9%) / 2579(48.8%)	<.001
	With family during holidays [N / Y]	334(6.3%) / 849(16.0%)	410(7.8%) / 3697(69.9%)	<.001
	Marriage [N / Y]	1098(20.8%) / 85(1.6%)	2141(40.5%) / 1966(37.2%)	<.001
	Consent to divorce [below average/above average]	379(7.2%) / 804(15.2%)	2402(45.4%) / 1705(32.2%)	<.001
	Consent to single mom [below average/above average]	442(8.4%) / 741(14.0%)	2358(44.6%) / 1749(33.1%)	<.001
	Consent to adoption [below average/above average]	390(7.4%) / 793(15.0%)	1919(36.3%) / 2188(41.4%)	<.001
J o b & S c h o o l	Consent to homosexual love [below average/above average]	374(7.1%) / 809(15.3%)	2260(42.7%) / 1847(34.9%)	<.001
	I have clear goals in life [N / Y]	429(8.1%) / 754(14.3%)	1360(25.7%) / 2747(51.9%)	.044
	I must go to college for life goals [N / Y]	379(7.2%) / 804(15.2%)	1167(22.1%) / 2940(55.6%)	.016
	My career/job with my criteria [N / Y]	78(1.5%) / 1105(20.9%)	191(3.6%) / 3916(74.0%)	.007
	I can have the job I want [N / Y]	274(5.2%) / 909(17.2%)	792(15.0%) / 3315(62.7%)	.003
	I am satisfied with my school life [N / Y]	212(4.0%) / 971(18.4%)	415(7.8%) / 3692(69.8%)	<.001
	I must go to school [N / Y]	411(7.8%) / 772(14.6%)	886(16.7%) / 3221(60.9%)	<.001
S o c i e t y & N a t i o n	In danger, someone will help me [N / Y]	402(7.6%) / 781(14.8%)	765(14.5%) / 3342(63.2%)	<.001
	Our society is generally fair [N / Y]	780(14.7%) / 403(7.6%)	2155(40.7%) / 1952(36.9%)	<.001
	Our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N / Y]	472(8.9%) / 711(13.4%)	1001(18.9%) / 3106(58.7%)	<.001
	Our society that recognizes diversity [N / Y]	603(11.4%) / 580(11.0%)	1240(23.4%) / 2867(54.2%)	<.001
	Where men and women are equal [N / Y]	726(13.7%) / 457(8.6%)	1711(32.3%) / 2396(45.3%)	<.001
	I am proud that I am Korean [N / Y]	322(6.1%) / 861(16.3%)	497(9.4%) / 3610(68.2%)	<.001
	Do anything for my country in danger [N / Y]	665(12.6%) / 518(9.8%)	1484(28.1%) / 2623(49.6%)	<.001
	Positive aid to other countries [N / Y]	371(7.0%) / 812(15.3%)	878(16.6%) / 3229(61.0%)	<.001
	Sacrifice my interests for my group [N / Y]	528(10.0%) / 655(12.4%)	1308(24.7%) / 2799(52.9%)	<.001
	Not in my backyard [N / Y]	722(13.6%) / 461(8.7%)	2367(44.7%) / 1740(32.9%)	.037
	Unification of North & South Korea [N / Y]	660(12.5%) / 523(9.9%)	1727(32.6%) / 2380(45.0%)	<.001
	Our society provides youth activities [N / Y]	352(6.7%) / 831(15.7%)	907(17.1%) / 3200(60.5%)	<.001
	Sacrifice my rights to stop COVID-19 [N / Y]	363(6.9%) / 820(15.5%)	997(18.8%) / 3110(58.8%)	<.001
	Trust in parents [N / Y]	66(1.2%) / 1117(21.1%)	89(1.7%) / 4018(76.0%)	<.001
	Trust in friends [N / Y]	166(3.1%) / 1017(19.2%)	378(7.1%) / 3729(70.5%)	<.001
	Trust in school teachers [N / Y]	277(5.2%) / 906(17.1%)	554(10.5%) / 3553(67.2%)	<.001
	Trust in neighbors [N / Y]	901(17.0%) / 282(5.3%)	2639(49.9%) / 1468(27.8%)	<.001
	Trust in the media [N / Y]	784(14.8%) / 399(7.5%)	2364(44.7%) / 1743(32.9%)	<.001
	Trust in politicians [N / Y]	1063(20.1%) / 120(2.3%)	3325(62.9%) / 782(14.8%)	<.001
	Trust in public officials [N / Y]	699(13.2%) / 484(9.1%)	1914(36.2%) / 2193(41.5%)	<.001
Trust in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 / Y]	759(14.3%) / 424(8.0%)	2231(42.2%) / 1876(35.5%)	<.001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N / Y]	461(8.7%) / 722(13.6%)	1479(28.0%) / 2628(49.7%)	.063	
Trust in our society [below average/above average]	754(14.3%) / 429(8.1%)	2012(38.0%) / 2095(39.6%)	<.001	

Note. N = 5290. N/Y=Negative/Positive.

것의 필요성(Adj.OR=1.41)이 영향을 미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입장(필수 혹은 가능한 한 하는 입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래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3.30(Exp( $\beta$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직업관에서 향후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 할 의지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래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1.52(Exp( $\beta$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 및 국가관에서, '길거리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 (Adj.OR=1.33), '우리 사회의 다양성 인정' (Adj.OR=1.25), '한국인으로서 자긍심'(Adj.OR=1.42), '나라가 위급할 때 무엇이든 하겠음'(Adj.OR=1.28)의 견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장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ORs) of the Youth Value Factors for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Youth Value Factors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Adj.OR (95% CI)
Own philosophy(outlook of life)	
Importance of boy or girl friend (ref. negative)	1.79***(1.51-2.11)
View on family and marriage	
Having children after marriage (ref. negative)	19.41***(14.35-26.24)
Spending time with family during holidays (ref. negative)	1.41***(1.16-1.72)
Attitudes towards marriage (ref. negative)	3.30***(2.55-4.25)
Career and occupational view	
I will choose my career/job with my criteria	1.52*(1.08-2.15)
View on society and nation	
When I am in danger, someone will help me (ref. negative)	1.33**(1.11-1.60)
Korean society that recognizes diversity (ref. negative)	1.25*(1.06-1.48)
I am proud that I am Korean (ref. negative)	1.42**(1.15-1.76)
When my country is in danger, I will do anything (ref. negative)	1.28**(1.08-1.51)

p-values were obtained after adjustment for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and education level. N=5290 (1183/4107); 77.6% classified correctly, R<sup>2</sup>=.290 (Cox & Snell), R<sup>2</sup>=.443 (Nagelkerke), Model Chi-square = 1810.106 (p<.001); Hosmer & Lemeshow test : Chi-square = 9.795, df = 8, p=.280.

Note. N = 5290. CI = Confidence interval. OR = Odds ratio. All independent variables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ospective intention of childbirth were entered into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using the forward stepwise selection routine. \*p < .05. \*\*p < .01. \*\*\*p < .001.

### 3.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하여, 미래 성장 동력과 예비 결혼 세대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출산의향에 가치관(인생관, 가족 및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학교 및 친구관, 사회관 및 국가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출산의향의 관련 요인으로 밝혀진 청소년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및 결혼관과 관련된 요인 중 '자녀관(자녀 계획의 필요성)'이 긍정적인 경우에 출산의향이 19.4배 유의하게 높았고, '긍정적 결혼관(필수 혹은 가능한 한 하는 입장)'을 지닌 경우에 출산의향이 3.3배 정도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보다 출산의향이 1.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 및 결혼관 영역에서 출산의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자녀관 및 결혼관, 가족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결혼 의지와 긍정적인 출산의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 출산의향과 결혼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한 선행 연구[20,33], 대학생의 결혼 동기에 자녀관과 결혼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34], 한국 청년의 출산의향은 가족가치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Yim[5]의 연구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적 발달 특성상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성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생식 능력을 지니게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며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도기이다. 자아 정체성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이성과의 연애 관계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35]. 청소년이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발달 욕구를 가지는 것, 예비 부모로서 긍정적 양육 신념을 형성하는 것[36]은 생산적 동기인 출산의향을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설날, 추석 등)에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견해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가족애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족 의례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37]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에서 가족 우선성 가족주의(가부장주의적)와 같은 가족가치관 형성이 긍정적 출산의향과 관계가 있었던 Yim[5]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생관 중 '이성 친구의 중요성'(1.8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장래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 교제는 단순히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배우자 선택의 과정이자 결혼에 이르는 결혼 이행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1]. Seo와 Lee[3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 됨의 인식은 긍정적일수록 결혼 의식 수준을 높여서 출산의향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 속에서 출산의향 태도를 지나게 되는 것은 단기간의 관심과 욕구이기보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이상적인 부모 역할 인식, 이성 교제 경험을 통한 결혼관 및 자녀관 형성, 가족 문화의 가치 체계 정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자녀 출산의향에는 미혼 여성의 경우, 인터넷 정보 홍수 속에서 접하는 출산 전후의 변화와 출산 과정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등이 관련이 있었으므로, 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24]. 각 학교 현장 및 청소년 관련 상담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 관계와 성교육과 더불어 예비 부모 세대로서 부모 역할로의 성공적인 이행이나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족 형성을 통한 자녀 출산·양육의 긍정적 측면 등 결혼·가족관 개선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SNS나 미디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결혼·출산·돌봄 지원 정책 가이드를 홍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청소년이 긍정적인 결혼·출산관을 갖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 및 직업관 요소 중 진로나 직업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래 출산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패널 데이터 특성상 진로 및 직업관과 관련 있는 대상자의 세부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해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Z세대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나 성취 지향 욕구 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어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기부터 영향을 받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건강한 가족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때, 동기 부여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롤모델로서 원가족 역할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미래의 자아실현과 부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일·가정 양립 제도) 경감과 결혼·출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및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후기 여자 청소년

(19~2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관과 이혼관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절반 가까이가 결혼 의향 자체가 없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9]. 고학년이 될수록 한국의 입시제도하에서는 대학 진학·진로 문제에 직면한 중고교생의 학업 성취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같은 특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Z세대인 한국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도한 입시 경쟁 환경에서 불안, 우울, 압박, 좌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 등의 문제로 심리사회적 건강이 취약할 수 있다[40]. 우리나라 10~1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라는 통계 결과[41]가 있는 만큼 청소년이 삶의 목표에 대한 안정적 추구와 장래 희망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또래관계, 부모 양육 방식, 자아 정체감이 유명되었다[40]. 한편, Kim 등[42]이 수행한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한국 청소년에게 '꿈'은 가정 환경(소득, 주 양육자 학력)이나 주변 타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계급적 지위 표식으로 형성되어 N포 세대에 양극화 양상이 미래의 꿈에도 적용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이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보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꿈을 지지하고 추구하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관 및 국가관과 관련된 요소 중 '길거리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임'(1.3배), '우리 사회의 다양성 인정'(1.3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1.4배), '나라가 위급할 때 무엇이든 하겠음'(1.3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장래 출산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를 주도할 차세대 인력인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관과 함께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은 출산의향의 토대를 이루어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재생산건강은 생식건강으로도 불리며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 및 인구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재생산건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율성 보장, 성생활에 관한 시기에 대한 결정,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 정보, 자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43]. 단변량분석 결과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남녀평등, 인권 존중에 대한 견해에 따라 장래 출산 희망 자녀의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성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높였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 행위인 동시에 사회적 행위이므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44]. Z세대는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문화, 민족성, 종교적 측면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편견 없이 수용하는 데 탁월하고, 자기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개인적·독립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시 한다[45].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국가 사회적 차원의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출산의향을 제고하고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세대 맞춤형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담론과 정책의 방향은 고용, 주거, 양육 분야를 지원하면 즉시 출산율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미래 사회의 주요 인적 자원인 Z세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의향과 의사결정을 유인하는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과 출산이 적어도 개인 측면에서 손해가 아니고 행복한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삶도 가치 있는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혼 성인들은 국가의 청년 지원 정책이 세금 혜택 등에서 연령 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기혼자보다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체감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의 질의 격차, 문화 인프라 부족, 난임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와 의료 혜택 부족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4]. 따라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 연령과 가족 다양성 등을 반영한 범위와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고, 미래 세대의 결혼·출산의향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결혼 후 가족건강성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장치, 가족제도 내의 성역할 및 책임 인식 변화, 경제적 여건(주거, 일자리, 소득, 출산 및 육아 돌봄 비용 등) 등도 조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출산의향은 사회·국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가치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안전망 속

에서 보호받고 모든 세대와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애국심과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국가관은 정치사회화의 산물로서, 개인은 사회의 여러 매개체(가족, 또래, 학교, 미디어 매체 등)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에 대한 태도와 행동 양상을 평생 동안 학습하게 된다[46]. 뉴스와 시사 미디어의 활용, 친구에 대한 신뢰, 가족과의 대화는 일상적 삶 속에서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체[47]이다. 본 연구의 단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와 타인(부모님, 친구, 선생님, 이웃), 언론, 인터넷 정보, 정치인 등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출산의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행동에서 사회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48], 청소년이 가족, 학교생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며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9]. 따라서 한국 청소년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육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예비 결혼 세대를 위한 맞춤형 행정 지원 방안의 마련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와 내용을 정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출산의향을 유보하고 저해하는 다양한 제도,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소년의 인식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배려하고 공동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가적 자긍심은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청소년이 향후 행복한 가정의 형성과 후손 양성을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을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원하며 교류해야 한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의 조사 시기는 2020년 7~9월이었다. 이 기간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었으므로 가족 활동 감소, 가족 분위기 쇠퇴 등[49]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다가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현 시점과는 구별되는 맥락에서 수집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권리 희생이라는 견해 외에는 관련 변수가 부족하여 출산의향과의 관계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사가 시행된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의 환경적 맥락이 10대 청소년의 가족 건강과 청소년의 발달 및 결혼·출산 가치관에 대한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상황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 데이터로서 1개년도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는 중단 분석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패널 데이터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조사 영역 및 설문 문항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척도로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이 제한적이었다. 추후에는 유의미하게 밝혀진 가치관 영역에 대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척도를 활용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주관적으로 측정된 청소년 가치관 변수들이 측정 오차를 포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래(미래) 자녀 출산의향 간의 관련성이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다. 출산의향에 대한 통제 변인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접근 가능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자료는 제한적이었는데, 다양성, 다원주의 확산과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는 가족 구조와 유형, 가족 문화,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직업 환경[6], 원가족과의 성장 경험 및 부모-자녀 관계 [19]등을 포함하여 가치관 및 출산의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장래 출산의향에 대한 청소년 가치관의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으므로, 청소년 장래 출산의향 예측 요인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극저출산의 심화와 장기화 사태 및 N포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한 상황에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가치관이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세대 맞춤형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발달 특성상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통합하여 본 인간의 인생관을 확립해 가는 성인 진입기에 있고, 디지털 원주민으로 태어난 Z세대의 특수성(다양성 존중, 개

인화, 독립성, 경제적 가치 중요도)으로 인해 기성세대와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의 배려와 소통을 통해 갈등 없이 제도, 문화,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조가 필요하다. 예비 결혼 세대인 이들의 결혼관·출산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형성 시기인 유소년기부터 가족, 학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모 역할로의 이행 전략, 긍정적 이성 교제 및 성교육, 결혼·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각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상담 기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 관계와 성교육과 더불어 예비 부모 세대로서 부모 역할로의 성공적인 이행,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족 형성을 통한 자녀 출산·양육의 긍정적 측면 등 결혼·가족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결혼·출산·돌봄 지원 정책 가이드를 청소년 친화적인 채널(SNS,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한다면 이들의 결혼관·출산관을 긍정적으로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꿈꿔 온 인생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율성과 선호 라이프스타일을 보장하고, 높아지는 결혼 연령과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출산 지원 정책으로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Z세대인 10대 청소년의 출산의향은 사회·국가 공동체 관점에서 형성되는 가치 영역이므로, 이들이 사회적 신뢰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은 미래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지원 등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와 내용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Birth Statistics in 2022 [Internet]. [cited 2023].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 (accessed July. 20, 2023)
- [2] F. M. Ibrahim, O. S. Arulogun, "Posterity and population growth: fertility intention among a cohort of Nigerian adolescent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37, pp.25-52, Mar. 2020. DOI: <https://doi.org/10.1007/s12546-019-09230-z>
- [3] Y. J. Shin,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llenges of Childbearing Intention and Childbirth Plan,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orea, pp. 1-10, 2021.
- [4] S. Oh, "A study on the marriage and fertility values of never-married men and women, focusing on family values type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45, No.3, pp.51-86, Sep. 2022.  
DOI: <https://doi.org/10.31693/kjps.2022.09.45.3.3>
- [5] J. Yim, "Fertility intentions of Korean young adults: family values and their impac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44, No.4, pp.47-74, Dec. 2021.  
DOI: <https://doi.org/10.31693/kjps.2021.12.44.4.47>
- [6] S-H. Cho, S-H. Moon, "A Study on job stability and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1, No.4, pp.262-279, 2021.
- [7] D-E. Lee, W. Seo, "Comparing the effects of regional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the case of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51, No.2, pp.151-168, 2021.  
DOI: <https://doi.org/10.22640/lxsi.2021.51.2.151>
- [8] S. Jeong,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49, pp.167-176, 2009.
- [9] M. Kim,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ts in school and youth's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65, pp.247-272, Jun. 2020.  
DOI: <https://doi.org/10.17997/swry.65.1.9>
- [10] S-H. Oh, H-J. Kim, "A study on the 'low fertility' research trends using text mining technique: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process of low fertility polic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0, No.3, pp.492-533, 2020.
- [11] Y. K. Lee. A survey on the values and perceptions on demographic change, family, age and generation,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pp.1-439, 2020.
- [12] B. Barhate, K. M. Dirani, "Career aspirations of generation Z: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Vol.46, No.1/2, pp.139-157, Jan. 2022.  
DOI: <https://doi.org/10.1108/ejtd-07-2020-0124>
- [13] M. Dimock,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Pew Research Center*, Vol.17, No.1, pp.1-7, 2019.
- [14] K. Gabrielova, A. A. Buchko, "Here comes generation Z: millennials as managers", *Business Horizons*, Vol.64, No.4, pp.489-499.  
DOI: <https://doi.org/10.1016/i.bushor.2021.02.013>
- [15] S. Lee, Y. Jung, J. Y. Lee, "The Future of School Assessment for Post-generation Z",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0, pp.1-24, Oct.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20.1>
- [16] M. Kang, E. J. Jeong, H-Y. Cho, "The immersi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YouTube channels for Generation Z",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2, pp.150-161, 2020.
- [1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study on changing youth values of generation Z [Internet]. [cited 2020], Available fro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bsite: <https://www.nypi.re.kr> (accessed July. 20, 2023)
- [18] S. Yunos, R. Din, "The generation Z readiness for industrial revolution 4.0", *Creative Education*, Vol.10, No.12, pp.2993-3002, 2019.  
DOI: <https://doi.org/10.4236/ce.2019.1012223>
- [19] E-J. Kim, H. Chung, Y-J. Jeong, "Effects of the value on children, the motivation for marriag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on the will to have a child: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0, No.1, pp.27-39, Mar. 2022.  
DOI: <https://doi.org/10.7466/jfbl.2022.40.1.27>
- [20] S. H. Park,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p.103-111, Jan.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03>
- [21] T. Kim, Reestablishment of Korean Ethics, Philosophy and Reality, 2010, pp.431.
- [22] S. S. Lee, "Values of the youth on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implicatio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124, pp.5-14, 2007.
- [23] M. K. Park, "Priority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policy needs of MZ generation",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22, No.1, pp.33-54, Mar. 2022.  
DOI: <https://doi.org/10.46330/jkps.2022.3.22.1.33>
- [24]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low birthrate through value analysis [Internet]. [cited 2019], Available from BWFDI website: <https://www.bwf.re.kr> (accessed July. 23, 2023)
- [25] M. J. Park, B. G. Min, M. J. Lee, "A study on the happiness of future generations: focusing on MZ generation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4, pp.121-147, Dec. 2021.  
DOI: <https://doi.org/10.36700/kruma.2021.12.34.4.121>
- [26] S-Y. Bae, Y-H. Pan, "A study on the domestic labor service through the behavioral analysis of millennial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and Multimedia*, Vol.7, No.2, pp.107-116, Jun. 2020.  
DOI: <https://doi.org/10.29056/jdaem.2020.06.02>
- [27] H. Schroth, "Are you ready for Gen Z in the workpla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61,

- No.3, pp.5-18, May. 2019.  
DOI: <https://doi.org/10.1177/0008125619841006>
- [28] Z. Oshrieh, N. Tehranian, E. Ebrahimi, A. Keramat, M. Hassani, R. Kharaghani, "Childbearing inten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 girls: A narrative review",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Vol.25, No.1, pp.7-11, 2020.  
DOI: [https://doi.org/10.4103/ijnmr.ijnmr\\_180\\_18](https://doi.org/10.4103/ijnmr.ijnmr_180_18)
- [29] J. Han, M. Chin, S. Noh, "An association between latent profile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ttitudes and individual perceptions on Korean society and own future prospect among young adults",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Vol.31, pp.166-188, 2019.
- [30] S. Park, J. Lee, "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arital intentions among never married young adults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7, No.1, pp.107-137, 2022.
- [31] S. Cho, S-J. Byou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dating and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pop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0, No.4, pp.82-114, 2020.
- [32]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stdict.korean.go.kr> (accessed July. 27, 2023)
- [33] E-J. Lee, S-J. Hong, S-H. Kim, "Factors affecting childbirth will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1, pp.684-692, Nov.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1.684>
- [34] M. Park, N. J. Je, "The effect of view on marriage, children, psychosocial maturity, social pre-parental role recognition on marriage motivation in Colleg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1, pp.316-328, 2019.
- [35] S. J. Kim, H. S. Doh, W. K. Lee, B. Park, "The pathways from parent attachment to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through peer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7, No.5, pp.83-100, Oct. 2016.  
DOI: <https://doi.org/10.5723/kics.2016.37.5.83>
- [36] I-K. Seo, Y-S. Lee,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parenthood on procreation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for adolescents", *Health & Welfare*, Vol.22, No.1, pp.7-24, Mar. 2020.  
DOI: <https://doi.org/10.23948/kshw.2020.03.22.1.7>
- [37] Y.-K. Kim, H.-G. Park. "A study on the directionality of the way to celebrate Korean traditional holiday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63. No.1, pp.9-43. Mar. 2020.  
DOI: <https://doi.org/10.31930/jas.2020.03.63.1.9>
- [38] I-K. Seo, Y-S. Lee,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parenthood on procreation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for adolescents", *Health & Welfare*, Vol.22, No.1, pp.7-24, Mar. 2020.  
DOI: <https://doi.org/10.23948/kshw.2020.03.22.1.7>
- [39] S-B. Oh, S. C. Park, "The impact of family related value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young women",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6, No.2, pp.279-300, 2018.
- [40] H. S. Park, J. Y. Park,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ated to life goals of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7, No.1, pp.191-223, Jan. 2020.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0.01.27.01.191>
- [4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causes of death in 2021 [Internet]. [cited 2022],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 (accessed July. 20, 2023)
- [42] S. J. Kim, Y. Cha, S. Choi, "Unequal futures: 'dreams' of adolescents as status marke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54, No.1, pp.101-138, Feb. 2020.  
DOI: <https://doi.org/10.21562/kjs.2020.02.54.1.101>
- [43] S-Y. Lee, "Reproductive health status and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308, pp.94-104, June. 2022.  
DOI: <https://doi.org/10.23062/2022.06.8>
- [44] J. M. Park, H. J. Park, S. K. Lee, "The roles of the quality of life and perceived social qualities on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53, No.4, pp.33-54, 2022.
- [45] Y. R. Kang, M. Y.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a focus on the 2010-2020 studi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24. No.1, pp.81-94.  
DOI: <https://doi.org/10.5805/SFTI.2022.24.1.81>
- [4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views of historical awareness among northeast asian youth. [Internet]. [cited 2006], Available fro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bsite: <https://www.nypi.re.kr> (accessed July 18, 2023).
- [47] W. S. Song, "A study on factors for increasing the adolescents' political and social capacity: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friends, and media variable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Vol.53, pp.45-83, 2019.
- [48] M-Y. Hwang,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youth s offline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0, pp.837-854, Oct.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0.837>
- [49] T. Eichhorn, S. Schüller, H. S. Steinberg, C. Zerle-Elsäßer, "Family climate in pandemic times: adolescents and mothers", *Social Inclusion*, Vol.11, No.1, pp.1-13, Jan. 2023.  
DOI: <https://doi.org/10.17645/si.v11i1.6007>

김 아 림(Ah Rim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의료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미숙아(고위험 신생아) 간호, 아동 발달, 가족 건강, 디지털 헬스 케어 등